

한 달째 ‘日 불매운동’ 더 확산된다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일제를 사지 않습니다.”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따른 수출규제 보복조치로 촉발된 ‘보이콧 재팬’ 일제 불매운동이 일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상인회에서도 적극 행동하는 등 한달째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5가. 곳곳에는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규탄한다’라는 플래카드 10여개가 내걸려 있다.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자 자발적으로 내건 것.

충장상인회 측은 “광주정신의 중심지에서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동건어물시장 상인들도 시장 내에서 취급하는 멸치와 노가리 등 일본산 수산물을 일절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국내산 제품을 적극 권유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제불매 운동은 정치권과 교육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광주정신 재무장 ‘5NO’ 상인·시민들 참여 행렬

각계각층서 일본 규탄…일각 선의의 피해 우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충장상인회는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일제불매운동에 동참했다.

광주광역시와 제일고 등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일본 학용품들을 구매 않기로 했다. 유명 불펜 대신 국내산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스포츠웨어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간식도 사먹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시교육청은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단의 방문을 취소했고, 전남도교육청

은 공무휴가와 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했다. 광주 북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시·구의원 일본연수를 취소한 바 있다.

일상의 모습도 사뭇 달라졌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평소 인기리에 팔렸던 ‘아사히, 삿쵸로’ 등 일본 주류품을 주류코너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노노

재팬, 보이콧 재팬’ 스티커를 붙여 놓은 상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일본산 연고나 영양제, 안약 대신 국내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휴가철 미리 예약한 일본여행 취소 인증 사진을 게시하거나 일본제품이 어떤 게 있는 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노노재팬’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은 안 사고, 안 가고 뿐 아니라 안 팔고, 안 타고, 안 입는 ‘5노(5NO)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일본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최근 일본 생맥주나 사케 등을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국내 생산 맥주나 국내산 청주를 더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장기 경기 침체에 손님도 줄어드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의미 있는 일본제품 보이콧에 업주들도 국내산 주류와 제품을 내놓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선처받은 절도범에 도움 손길 경찰 “죄는 원칙대로 처벌…”

절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절도범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절도범을 돕고 있다는 문기가 경찰서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절도범 A(27)씨에 대해 피해자가 선처했다는 내용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서에는 10여명의 시민이 잇달아 연락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시민은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전화했다”며 “200만원을 보내줄 테니,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보태 달라”고 말했다.

광주 주민인 한 주부는 “어제 아침에 기사를 읽고 슬픈 마음에 점심도 걸렀다”며 “매달 후원을 하고 싶으니 청년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업체는 속식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지나치게 미화해 도와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를 저지른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니,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할 예정이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기를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대가 없는 도움보다는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취업 지원책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민들의 답지 소식에 A씨는 “죄인을 도와주겠다는 분이 많다니, 부끄럽고 면목 없다”며 “마음을 잡고 다시 새 출발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동구 내일 아시아 푸드페스티벌

광주 동구가 오는 3일 오후 7시 구시청사거리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 ‘아시아컬처&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구시청사거리 풀리 주변에서 청소년 예술경연대회가 열리고 버스킹, 아이돌 댄스 등 축하공연으로 꾸며진다.

더불어 이날 창업지원점 ‘이슬먹는 부엌’에서 아시아 액세서리, 부엌이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이, ‘안녕사쿠라’, ‘와야객점’에서는 컵 만들기와 페인팅 타투 체험이 펼쳐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푸드페스티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컬처&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해 아시아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승지기자

CMYK

퇴임 조합장에 역대 공로금 지급 ‘논란’

광주·전남 지역농협 ‘부적정’ 예산관리 집행 도마위

퇴임 조합장에게 역대의 공로금이 지급돼 논란이다.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임원들이 수령하기도 했다. 농협의 예산관리 집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남의 한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천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천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이른바 ‘조합발전 특별 퇴임 공로금’으로 퇴직금 지급 두 달 뒤 집행됐다.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1월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특별퇴임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공로금 지급에 반발해 임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농협 관계자는 “총회 의결을 얻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중앙회 질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 조합장이 퇴임할 때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의 또 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 외에 공로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지급이 취소되기도 했다.



‘더워, 물러가!’ 연일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1일 동구 용산동 동산타워 앞 광주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 물놀이 시설은 광주천 건전화 방지용으로 주암호의 맑은 물을 이용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3년 만들어졌다.

전남교육 2020년 예산편성 ‘주민과 함께’

도교육청 재정 운영 투명·효율성 제고 의견 수렴 개시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우리 학생들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전남도교육청이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도 전남교육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1일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 전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

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도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사업에 대해 연중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FAX,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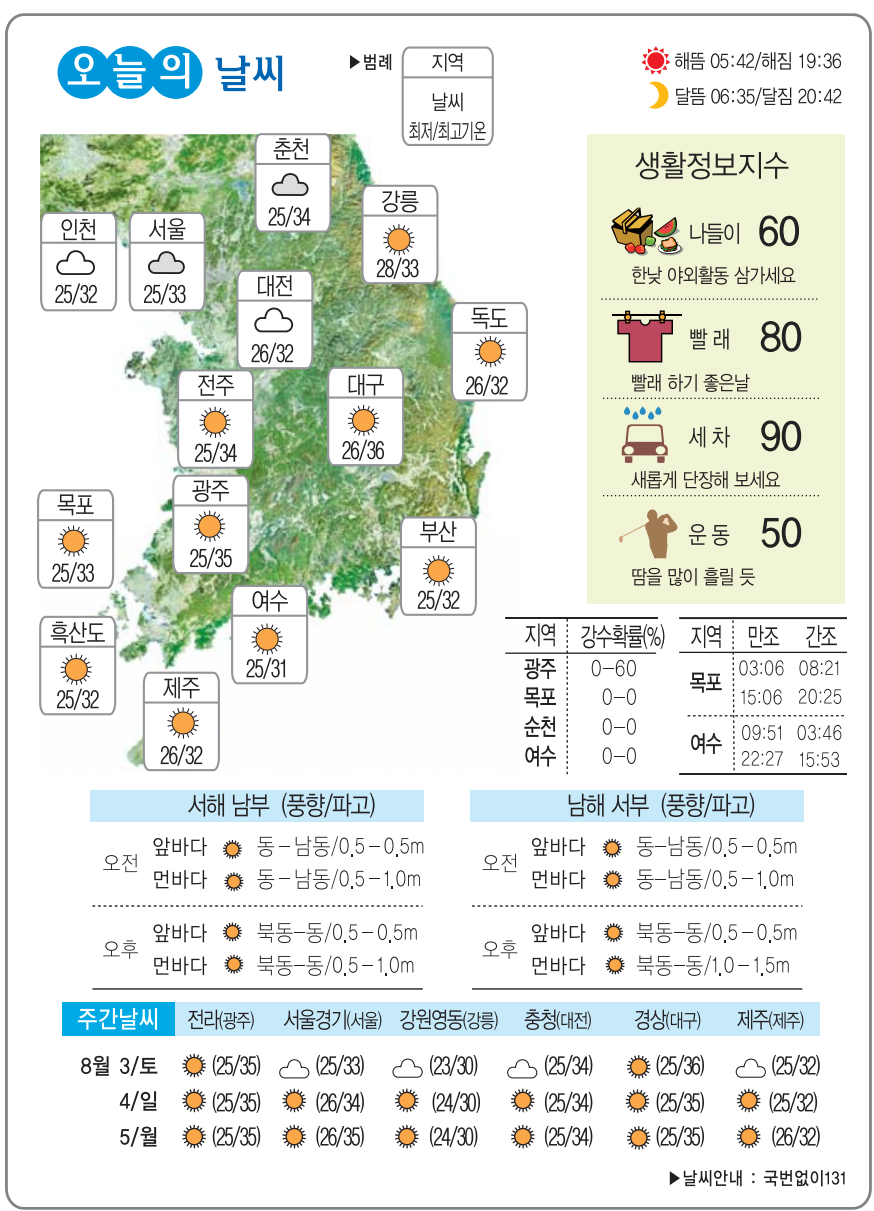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주민의견 149건을 접수했으며, 예산 반영 87건, 의견 수용 추진 19건, 향후 검토과제 24건, 기타 19건 등의 처리를 완료했다. 그 결과

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도진 예산정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남교육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8-9월중에도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교직원, 전남도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어서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김종민기자



낮 최고 36도, 주말까지 폭염 맹위 지속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10개 시군(광양·담양·구례·장성·화순·보성·순천·장흥·함평·영광)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강화했다. 고흥과 완도, 신안(흑산면 제외), 진도군에는 폭염주의보 발효를 예고했다.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기온은 29-36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광주와 나주·곡성은 1일 오전 10시부

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서구 36.3도, 나주 다도 35.8도, 곡성 옥과 35.8도, 광주 과학기술원 35.5도를 기록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주 후반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열질환, 가축폐사 등 폭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철원기자

5·18 참상 세계에 알린 빌링스 선교사 별세

윤한봉 열사 美 도피생활 지원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 페기 빌링스(Peggy Billings, 한국이름 변영숙) 선교사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빌링스 선교사의 장례예배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미국 맨해튼에서 열렸다.

빌링스 선교사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마지막 진압작전을 벌인 이틀 후인 5월 29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5·18 진상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교회에서는 5·18 추모 예배도 열려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예배도 진행됐다.

진상보고회는 신군부가 광주의 참상을 묵인하고 언론을 통제된 상황에서 한



국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에 최초로 5·18의 참상을 알리는 첫 사건이었다.

이후 그는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윤한봉 열사가 1981년

4월 화물선 레오파드호에 숨어 35일 연명하며 미국으로 밀항했을 때, 미국 도피생활과 1993년 5월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당시 광주는 국내적으로 고립됐으나, 빌링스 선교사와 많은 활동가들의 헌신 덕분에 연대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5·18과 여성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빌링스 선교사의 영면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환준기자

북구, 남도의 맛 계승 전통음식 강좌 운영

오는 16일까지 수강생 신청 접수

광주 북구가 하반기 전통음식 강좌를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16일까지 남도의 맛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2019년 하반기 전통음식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15주 과정이며 발효 저장음식 자연주의음식 향토음식 떡 한과 무형문화재 내림음식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발효 저장음식은 고추장 된장, 장아찌, 김치류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며 자연주의음식은 연잎밥, 매생이국, 버섯전골 등 건강요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향토음식은 계절식으로 닭강정, 갈비찜, 토란탕 등 지역 토속음식과 한식요

리 과정이며 떡 한과 과정은 꽃송편, 떡케이크, 절편류 등 떡류와 한과류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무형문화재 내림음식은 평소 배워보지 못한 너비나니, 전복찜, 집장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사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이애심, 이수자 선생이 참여한다. 아울러, 북구는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주말 생활요리 강좌 수강생도 모집한다.

주말 생활요리 강좌는 등갈비찜, 오리탕, 양배추찜, 김장아찌 등 가족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특별식과 반찬류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통음식 강좌와 주말 생활요리 강좌 관련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환준기자